

■ 광주시립미술관 '중외공원 시대' 1주년 성성과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광주시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내에 자리 잡은 지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2년 광주문화예술회관 한 칸을 얻어 '더부살이'로 출발했던 시립미술관은 15년 만인

지난해 10월11일 독립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 수도' 광주의 대표 전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새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 방안 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지난해 광주 중외공원에 등지를 튼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 1년 만에 '시민 속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턱 낮춰 시민 속 미술관으로

광주 미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새 시립미술관 개관은 시민들의 관람 문화를 바꾸고 있다. 또 서울 인사동과 옛 전남도지사 공관에 분관을 내는 등 전시 공간을 늘려 지역 작가들의 중앙 무대 진출의 산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도 열고 있다. 어린이 갤러리의 성과도 눈부시다. 시립미술관은 어린이 미술관(3천466㎡)을 꾸미고, 어린이들이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는 창작체험관과 도예실, 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부산, 전북, 경남 지역 어린이미술관의 총 수강생이 160~500명이었던 반면, 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의

연중 1~2차례 시립미술관이 마련한 기획전을 열고, 평소에는 지역 작가들에게 절반 가격에 대여해주고 있다. 광주 지역 작가들의 중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지역작가 중앙 무대 진출 산파역 블록버스터 전 기획·작은 음악회 관람객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

해 호평을 받았다. 현대적 전시 공간에서 시민들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블록버스터 전시를 선보여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전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시절이었던 2006년과 2007년 관람객은 각각 7만3천여명, 7만9천여명 이었는데 올해는 9월 현재 20만8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강생은 1천672명이나 됐다. 타 지역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대부분 2~5개에 불과하지만 시립미술관은 30여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어린이 관람객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 외에도 시립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의 중국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현지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박지택 관장은 "현대적 전시 공간에 수준 높은 전시를 기획하면서 관람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 16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수상작 '회소'

세계로 진출하는 광주 무용

김미숙 하나무용단 쿠웨이트·필리핀 무대

21일 광주문예회관 '회소' 공연

춤 인생 30년을 훌쩍 넘긴 한국 무용가 김미숙씨는 지난해 큰 선물을 받았다. 자신이 이끌고 있는 김미숙하나무용단이 제 16회 전국무용제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이다. 또 일본 오사카와 하와이에 한국 전통무용을 선보이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자부심도 느꼈다.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무대에서 열리는 김미숙하나무용단의 정기공연은 다른 어떤 공연보다 기대되는 무대다. 대통령상 수상작인 '회소'를 지역민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가 때문이다. 유래만 전해져 내려오는 '회소곡'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회소'는 김 씨의 깔끔한 안무와 화려한 의상과 무대 등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회려한 볼거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또 연변 지역의 춤을 선보이는 독특한 무대도 마련된다. 최미선(연변대 교수)씨 등 12명의 출연진은 풍고족, 위글족, 파이족 등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춤과 '메아리', '인고의 세월' 등 창작 무용을 선보인다. 또 김 씨의 춤인생을 이끌어준 스승 정영례(전 목포시립무용단장)씨와 이명자씨 산조무와 태평무를 선사한다.



23일 쿠웨이트에서 '태평무'를 무대에 올리는 김미숙 단장.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쿠웨이트와 필리핀에서도 멋진 춤사위를 선보인다. 문화관광체육부와 쿠웨이트한국 대사관 초청을 받은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오는 23~29일 쿠웨이트 알 마이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일 전통무용과 의상의 밤' 행사에 참여, 태평무·향발무·살풀이·강강술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크리스티안 벨디 초청 연주회

17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벨디 초청 연주회가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한 크리스티안 벨디는 이번 무대에서 하이든의 '소나타 E 장조', 베토벤의 '소나타 작품 111 C장조', 라흐마니노프의 '소나타 작품 36 B장조'를 들려준다.

시인 50명이 기리는 "아! 박경리"

추모 시집 발간

"박경리는 제국이다 / 고독한 제국이다 / (중략) / 그는 한반도 제국을 다스리지 않았지만 / 모든 제국의 영혼은 그의 것이어서 /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 아! 박경리, 라고 하는 것이다". (정일근의 '아, 박경리' 중)

어귀의 풍경을 그리며 고인을 추억했다. "작가는 몸이 붙어 서식하는 이야기들 다 때놓고 / 혼자의 몸 훌훌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 저녁 어스름 통영은 / 저녁일 수 없는 시간에 돌아오고 있는 출신 작가 / 그녀를 샬레임 같은, 떠나가던 청춘의 계절 같은 이름 적어두고 / 지금 물결이다". ('통영 입구' 중). 권석창 시인은 자신의 문학에 영향을 미친 '토지'의 유산을 이야기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like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and '제일 시네마' with showtimes and titles.